

어느 농부의 데이터베이스

“나 물먹고 물마시고 팔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다.”는 옛 식귀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이 문구만으로는 작자가 분명히 가난한 양반이었던 듯 싶다. 이 당시의 농부는 과연 어떠했을까? 궁금해졌다. 아무래도 식귀만큼이나 태평스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다. 농부는 예로부터 부지런하지 않으면 굶게 마련이었다.

요즘의 발전된 농촌의 모습은 웬만한 농사일은 기계화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모심는 기계, 논메는 기계. 콤바인이라던가? 추수하는 기계로서 농부의 손을 많이 덜고 있지만,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농부들은 매일 매일이 고된 나날이었으며 이러한 굶주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기계화가 되지 않았던, 농부들이 고된 나날을 보내던 한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상상해 본다.

한 농부가 있었다. 바로 30년전의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다. 이 농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부락에서 50리밖에 나가 본거라곤 다섯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이 드물었다. 그만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전화, TV 등 정보매체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부락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고 대도시로 출행량칠 줄 미처 몰랐던 시절의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렸을 때 거의 모두가 겪었음직한 이야기이다.

그 농부는 논을 메어야 할 때가 되었다. 잡초제거를 위한 효과적인 농약도 없었다. 오늘날 농약에 의한 공해가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왔지만 농사일을 줄여 주는 데는 농약이 큰 도움이 된 것이다.

그때는 아직도 이런 농약도 일반화되지 못했던 시절이라, 일일이 손으로 논바닥을 긁어서 잡초를 제거하고 벼뿌리에 산소를 공급하였던 것이다. 몸과 마음이 짜부듯 하였다. 억지로 기운을 내어서 열마지기 논을 손수 메기 시작하였다. 날씨는 더웠고 땀은 비오듯 했다. 갑자기 허기도 지고 기운이 쑥 빠졌다.

눈두렁에 걸터 앉아서 아내가 점심을 가져오는 것을 기다렸다. 갑자기 눈거풀이 무거워졌다. 저절로 눈이 감겨져 그만 뒤로 벌렁 누어버렸다. 비몽사몽간의 한순간, 농부의 굳은 살이 박힌 흉문은 발바닥에 어떤 물체가 스쳐 지나갔다. 도무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눈도 뜰 수가 없었다. 자연히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그래도 머리속의 사고능력은 제대로 활동하는 모양이다. 비몽사몽간이니까,

머리속으로만 [스쳐간 물체]를 생각했다. 그것

은 분명히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것 같았다. 또 생각을 했다. 스쳐간 것은 분명한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약간 있었던 것 같다.

즉 한참동안 지나간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제법 길이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고 나니까 한가지 생각이 더난다. 그 물체가 인간의 체온이나 논물의 온도나 공기의 온도보다 훨씬 낮아서 차갑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다.

이 농부는 아무리 바깥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해 왔다고 해도, 두뇌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지식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것을 [데이터뱅크(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 싶다. 농부는 발바닥의 감촉으로 입수한 정보를 세가지로 축약하였을 것이다. 즉 [물렁물렁하다], [길다], [차갑다] 등이다. 이 세가지 정보(데이터)가 신경줄을 통하여 사령부(두뇌)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이 세가지 키워드(Key Word)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농부의 두뇌속에 있는 지식과 경험을 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순식간에 찾아본 결과 스쳐간 물체가 바로 [뱀]이라는 것을 알아내었을 것이다. 비몽사몽간이라 두뇌속은 활동하지만 몸뚱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만약 지식과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어린이의 데이터베이스라면 [뱀]이라는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농부는 [뱀]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동시에 "뱀중에는 독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마저 알아내고는 즉시 반사신경을 동원한다. "발 움추려!"라고.

지금까지 글로서 표현하다 보니 이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점 몇초의 짧은

순간(찰나)에 일어난 일이다. 키워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것이라고 오해될 수도 있으나 검색하고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영점 몇초이다. 아마도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켜 물체를 확인하고나서 발을 움추리는데는 빨라야 1-2초쯤 걸릴 것이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미 독사에게 물려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도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에는 고압계도 반사신경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비상경계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몸을 일으킬 여유없이 우선 발부터 먼저 움추리는 것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계통(통신망)이 짝 깔려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도 외부의 침입을 감지할 만큼 완벽하게 잘 되어 있다.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조에나 비유할까? 이미 국책사업으로 초고속 통신망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농부의 머리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의 머리를 구축하는 사업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두뇌(데이터베이스)가 먼저인가? 신경망(통신망)이 먼저인가? 우리 사회가 이제는 둘다를 갖춘 정보화사회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후자의 개발에 너무 치우치고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인 나아가서 국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담아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는 너무나 등한한 듯한 느낌이다. **DC**